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음악학 석사 학위논문

J.S.Bach의 <Brandenburg Concerto No.5> 분석 및 플루트 활용 연구

2018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관악전공

김민지

J.S.Bach의
<Brandenburg Concerto No.5>
분석 및 플루트활용 연구

지도교수 김 영 률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관악전공
김 민 지

김민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6 월

위 원 장 최경환 (인)

부위원장 김영률 (인)

위 원 Bruce Barrie (인)

국문초록

J.S.Bach의 <Brandenburg Concerto No. 5> 분석 및 플루트 활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음악과 관악 전공
김 민 지

바로크 시기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독일의 고유한 음악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인접 국가의 영향을 받은 범세계적인 음악을 추구하였다. 교회의 음악감독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한 바흐에게 단연 교회음악이 대표 장르에 손꼽히지만, 그는 또한 세속적인 기악음악 작곡에도 몰두하여 인간 본연의 감성을 음악에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바흐의 <Brandenburg Concerto No. 5>에 대한 분석

논문으로, Brandenburg Concerto는 바흐의 대표적인 세속 기악음악으로 총 6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이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제 5번 협주곡은 현악합주 구성에 유일하게 '솔로 플루트'가 사용된 곡이다. 여기서 솔로 플루트는 개량된 가로 플루트(Traverse flute)를 의미하며, Brandenburg Concerto 제 2번과 4번에서는 리코더가 사용되었지만, 제5번은 최초의 가로 플루트가 사용된 솔로 협주곡이다.

이 연구는 '솔로 플루트'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Brandenburg Concerto No. 5>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바흐의 음악어법 측면에서 플루트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솔로 플루트'의 활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곡은 바로크 시기 새롭게 고안된 '단일 키 플루트'의 기능과 매력을 잘 표현하여 플루트 곡에 관한 음악사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총 3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비발디의 영향을 받아 리토르넬로 양식으로 작곡되었지만, 악장의 구성이나 악기 편성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브란덴브루크 협주곡, 플루트, 바흐, 바로크시기
학 번 : 2015-21940

목 차

Ⅰ.서론 ····· 1

Ⅱ.본론 ····· 3

1.바로크시기 플루트 ····· 3

1)바흐 작품 속의 플루트.....6

2.<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분석 및 고찰 ····· 10

1)작곡 배경.....10

2)작품 분석.....16

3)플루트 활용.....32

Ⅲ.결론 ····· 37

참고문헌 ····· 39

Abstract ····· 41

표 목 차

[표 1]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9
[표 2]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특징 및 악기편성.....15
[표 3] 리토르넬로 부분과 솔로.....18
[표 4] 리토르넬로와 에피소드.....26
[표 5]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3악장 구조.....29

악보 목 차

[악보 1] 1악장 완전한 리토르넬로 주제.....19
[악보 2] 리토르넬로에서 차용된 모티브 원형.....20
[악보 3] 모티브a가 사용된 solo 1.....20
[악보 4] 모티브 b가 사용된 Solo 2.....21
[악보 5] 리토르넬로 원형과 '모티브b'.....22
[악보 6] 모티브 c가 사용된 첨발로 파트.....22
[악보 7] 리토르넬로 원형과 '모티브c'.....23
[악보 8] 모티브c와b가 결합된 Solo 5, 마디 60-70.....23
[악보 9] 첨발로 카덴자 시작부분, 마디 154-156.....24
[악보 10] 첨발로 카덴자.....25
[악보 11] 2악장의 주요 동기.....27
[악보 12] 2악장, 마디 1-3 27
[악보 13] 2악장, 마디 5-9 28
[악보 14] 3악장 푸가의 주제 30
[악보 15] 3악장, 1-13마디 30
[악보 16] 3악장 B부분의 주제.....31

[악보 17] 플루트 솔로 연주.....33
[악보 18] 바이올린과 동형진행 솔로 연주 34-35
[악보 19] Orchestral Suite No.2 BWV 1067 , Badinerie.....36

그림목차

[그림1] 오르테르, 하나의 키가 있는 플루트.....4

Ⅰ. 서론

바로크 시기의 대표적인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독일인이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등 외국의 영향을 받아 범세계적인 음악을 추구하였으며, 교회의 음악감독을 지냈지만 교회음악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감성이 내재되어 있는 세속적 기악음악을 다수 작곡하여 교회음악과 세속음악의 두 분야에서 모두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

바이마르 궁정 오르가니스트를 지낸 후 공식적인 교회음악을 작곡할 의무가 없었던 쾨텐 궁전 음악 감독 시절부터 바흐는 많은 세속음악을 작곡하며 음악의 폭을 넓혀갔다. 바흐가 오늘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1]으로 알려진 6개의 협주곡을 작곡한 것은 쾨텐 궁정 시기에 해당하는 1721년이다. 이 곡은 바흐의 다른 작품 또는 다른 작곡가들의 어떤 작품보다도 큰 인기를 끌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2] 이 연구에서는 6개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중 제 5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 5번은 바흐가 작곡한 협주곡 중 유일하게 '솔로 플루트'가 사용된 곡으로 제 2, 4번과 달리 개량된 가로 플루트(Traverse flute)[3]를 사용하였다. 당시 세속 기악음악 중 자주 사용되던 소규모 현악합주와 통주저음(Basso continuo)[4]에 관악기가 추가된 구성으로 바로크 시대 대부분의

---

1) 이 곡의 원제는 <여러 악기들로 연주되는 협주곡들>(Six Concertos Avec plusieurs Instruments) 이라는 프랑스어 제목으로 바흐에게 작품 몇 개를 위촉했던 브란덴부르크 후작에게 헌정된 곡으로 슈피타에 의해 제목이 붙여졌다.

2) 영국 그라마폰사의 음반 목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바흐의 작품들 중 가장 인기가 많다.

3) 오늘날 서양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는 플루트는 19세기 이전에는 '가로 플루트(traverse flute)'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불렸다. 그냥 '플루트'라고 하면 세로로 들고 부는 관악기인 '리코더(recorder)'를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에 '플루트'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악기는 리코더를 의미한다.

4) 통주저음(thoroughbass), 바로크 시대 유럽에서 성행된 연주법으로 주어진 베이스 선율에 즉흥으로 반주하는 것을 말한다. 숫자로 기보되어 있어 숫자 저음(figured bass)이라고도 말한다.

협주곡 악기 편성과 비슷하지만 기존 바로크 시기 음악에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음악적 표현이나 양식, 악기 구성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여 현악 합주 및 협주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이 가로 플루트가 쓰인 최초의 솔로 협주곡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크시기 플루트의 역사 및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바흐가 작곡한 또 다른 플루트 작품들을 알아보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의 분석을 통해 바흐의 음악어법 및 작품에서 플루트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있지만, 이 연구는 일반적인 음악 분석보다 플루트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자 한다.

Ⅱ.본론

1. 바로크시기 플루트

오늘날 플루트의 원형인 간단한 구조의 가로 플루트는 12, 13세기에 유럽 대륙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세 시대 가로 플루트는 군대나 유희에서 북(Drum)과 함께 합주하는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예술적 악기로서의 가치는 미미했다. 르네상스 시대 가로 플루트는 세로 플루트인 리코더에 열세이었으나 악기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음역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었다(Galway, 1990).

1638년 마랭 메르센느(Marin Mersenne, 1588-1648)라는 사람이 간행한 <우주의 조화 'Harmonie universelle(1638)' >라는 책은 바로크 초기의 가로 플루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메르센느에 따르면 당시의 가로 플루트는 마우스피스와 키가 붙어 있지 않은 둥근 나무관에 구멍이 6개 뚫려 있는 악기로 구멍의 배열은 온음계였으며 D조 악기였다. 이러한 바로크 초기 플루트는 높은 음역을 연주하기 어려웠고 반음계 선율을 정확히 낼 수 없었다. 가로 플루트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데 뚜렷한 업적을 남긴 것은 프랑스의 오트테르(Hotteterre) 가문[5]이었다(Powell, 2002). 그들은 한 개의 관으로 되어 있던 가로 플루트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접촉 길이를 조절해 미세한 음정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관을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추형으로 개량한 것은 지공 사이를 좁혀 손가락이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키(key)'라고 하는 장치가 오트테르 사람들에 의해 처음

5) Jacques-martine Hotteterre는 1674년 9월 29일 파리에서 출생하였다. 프랑스 파리 출신 음악가 Hotteterre는 유명한 우드 메이커와 배우 가문의 후손이며 1708년까지 Hotteterre는 잘 알려 진 앙상블인 Grande Écurie의 Bassoonist로도 활동하였다. 다양한 목관 악기를 연주하는 것 외에도, 그는 부유한 아마추어들에게 악기 사용법을 가르쳤고, 스스로 기존의 플루트를 개량하여 하나의 키가 붙은 '단일 키 플루트'를 만들었다.

으로 플루트에 도입되었는데, 이 키를 통해서 이전의 플루트로는 힘들었던 D#음의 연주가 수월해졌다(그림1).

<그림1> 오트테르, 하나의 키가 있는 플루트

독일인 요한 요하임 크반츠(Johann Joachim Quantz, 1697-1773)도 바로크 시대 플루트 역사에서 남다른 공을 세웠다. 크반츠는 가로 플루트에 대한 애정은 물론 상당한 연주 실력까지 갖고 있던 프러시아 프리드리히 대제의 궁정에서 일하면서 다수의 플루트 곡을 작곡했으며 악기 개량에도 힘썼다. 연주자들이 좀 더 쉽게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본관과 연결되는 윗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크반츠였다. 또한 그는 키도 하나를 더 추가했으며 취구도 사람의 입모양에 맞도록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꾸었다(Debost, 2008).

바로크시대가 도래하면서 플루트는 이 시기의 예술 경향을 따라 내면의 감정을 독주악기로서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였다. 리코더는 1700년대 초반까지는 가로 플루트 보다 더 선호되었지만, 가로 플루트가 개량되기 시작된 17세기 중엽부터는 가로 플루트 특유의 부드럽고 풍부한 울림이 인기를 얻어 각종 합주 무대에서 더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Toff, 1996).

초기의 세로 플루트가 오늘날의 가로 플루트로 대치된 데에는 가로 플루트가 리코더식의 세로 플루트보다 음향의 변화와 강약의 표현에 적합한 탓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가시(可視)적인 미적 감각에 의해 의도되어진 동(動)적인 율동의 표현에 기인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서종현, 2012: 15).

가로 플루트는 독일 및 다른 나라에서 리코더의 인기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흐를 포함한 당시 작곡가들은 가로 플루트의 작품보다

리코더를 위한 작품을 더 많이 작곡했는데 그 이유는 플루트가 리코더에 비해 연주하기 어려워 플루트를 잘 다루는 연주자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Francis, 1950: 46-52). 이러한 현상은 바로크 시대가 끝나기 전에 사라졌으며, 그 이후로는 플루트의 테크닉이 발전하면서 플루트가 주가 되는 곡이 많이 쓰였다.

바로크 시기 플루트의 주요한 레퍼토리를 남긴 대표적인 작곡가는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 Vivaldi, 1675-1741), 게오르그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 프란치스 쿠프랭(Francious Coperin, 1688-1733), 미셸 블라베(Michel Blavet, 1700-1768), 요한 요아임 크반츠(Johann Joachim Quantz, 1697-1773)로 비발디는 플루트를 위한 6곡의 협주곡과 6곡의 소나타, 텔레만은 12개의 무반주 모음곡과 소나타, 쿠프랭은 한 개의 협주곡, 블라베는 소나타모음곡을 남겼다. 이 작곡가들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요한 요하임 크반츠는 18세기 독일 프러시아 궁의 작곡가이자 전속음악가, 특히 프리드리히 대왕의 플루트 스승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플루트 연주의 예술' Versuch einer Anweisung, die Flote traversiere zu spielen' (1752)>이라는 교육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당시 플루트 연주법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하였고 약 300개의 플루트 협주곡과 200개의 실내악곡을 작곡하였다.

바로크 시대 가로 플루트(Traverse flute)는 현재 개량된 플루트에 비해 기능적인 면에서 현저히 부족했지만 특유의 따뜻한 소리와 부드러운 음색으로 감정을 전달하기에 충분했고 이 시기 이후로 꾸준히 개량되어 독주악기로서의 플루트를 위한 많은 작품들이 작곡되었다[6]. 또한 18세기부

6) 고전주의 시대에는 좀 더 원활한 반음계 연주를 위해 더 많은 키들이 악기에 부착되었다. 키가 네 개, 여섯 개, 또는 여덟 개까지 달린 플루트가 개발되었다. 19세기 독일인 테오발트 뵘(Theobald Böhm, 1793-1881)에 의해 플루트는 대대적인 혁신을 이룬다. 전문 플루트 연주자이자 금 세공인이었던 뵘은 기존의 플루트의 구조와 작은 음량, 정확하지 않은 음정, 운지법 등에 문제점을 느끼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그 결과 1847년 뵘은 현대 플루트의 기본 체계를 완성해냈다. 그는 원추형 플루트를 원통형으로 대체하였고, 취구의 모양, 크기, 각도, 구멍의 지경을 표준화시키고 금속으로 된 키를 장착시켰다. 과학적인 수식을 통하여 반음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플루트 제작의 체계화로 19세기의 음악가들은 좀 더 다양한 테크닉과 풍부한 표현이

터는 오케스트라에서 고음 선율악기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다.

(1) 바흐 작품 속의 플루트

바흐가 작곡한 중요한 플루트 작품으로는 <플루트소나타 8곡>(Flute Sonata)과 <브란덴부르크협주곡 5번>(Brandenburg Concerto No. 5 in D major BWV 1050)을 들 수 있다. 바흐는 세상을 떠나기 33년 전인 1717년부터 약 7년 동안 쾨텐 궁정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며 이 시기에 많은 플루트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그 이전의 작품들에는 리코더(Recorder)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이 시기부터 리코더 대신 가로 플루트(Traverse flute)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작곡된 작품으로는 1곡의 무반주 플루트를 위한 파르티타<J. S. Bach Partita a minor for Solo Flute e minor BWV 1013>, 총 8곡의 소나타 <J. S. Bach Sonata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BWV 1033-1035, Sonata for Flute and Obbligato Harpsichord BWV 1020, 1030-1032>가 있다.

바흐의 플루트 작품들 중 가장 늦게 세상에 알려진 <무반주 플루트를 위한 파르티타(J. S. Bach Partita for Solo Flute e minor BWV1013)>는"알르망드(Allemande),쿠랑트(Courante),사라방드(Sarabande), 부레 앙글레즈(Bouree Anglaise)"로 구성된 4악장의 실내 소나타이다. 이 곡은 바흐가 쾨텐 궁정악장 시절 초기였던 1717년 드레스덴을 방문했을 때, 드레스덴 궁정의 명 플루트 연주자로 봉직하고 있던 피에르 뷔파르댕(Pierre Gabriel Baffardin; 1689-1768)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추정된다(류연형, 2001: 197). 이 시기에 바흐는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무반주 첼로 모음곡도 작곡하였는데, 합주곡 위주의 작곡에서 한 단계 나아가 독주곡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 곡들과 함께 독주

가능한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악기로서의 플루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가장 즐겨 연주되고 있는 바흐의 <플루트와 쳄발로를 위한 소나타>는 총 4곡으로 3악장 구성이며 각 곡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Sonata for Flute and Obbligato Harpsichord solo in g minor BWV 1020>은 첫 번째로 작곡된 소나타 작품으로 1악장과 3악장이 g minor 알레그로(Allegro)이고 2악장은 Eb Major 아다지오(Adagio)로 교회 소나타(Sonata da chiesa)[7]와 실내 소나타(Sonata da camera)[8]의 혼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작곡된 <J. S .Bach Sonata for Flute and Obbligato Harpsichord solo in b minor BWV 1030> 는 "안단테(Andante) - 라르고(Largo) - 프레스토 (Presto)" 구성이고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중 최고의 걸작으로 뽑힌다. 쳄발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트리오소나타(trio sonata)[9]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Sonata for Flute and Obbligato Harpsichord solo in E♭ major BWV 1031>는 제 2악장 시칠리아노(Sicilano)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곡으로 바흐의 차남인 칼 필립 임마누엘의 작품이라는 설이 있지만 바흐가 직접 작곡했다는 연구가 더 지배적이다(류연형, 2001:197-198). 3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레그로 모데라토(Allegro Moderato)-시칠리아노(Siciliano)-알레그로(Allegro)"이다.

마지막으로 <Sonata for Flute and Obbligato Harpsichord solo in A major BWV 1032> 는 <플루트와 쳄발로를 위한 소나타> 중 유일하게 자필 악보가 현존하는 곡으로 "비바체(Vivace)-라르고 에 돌체(Largo e

---

7) 교회 소나타는 느림, 빠름, 느림, 빠름 순의 4악장으로 구성되었고, 미사의 특정 부분에서 연주되었다.

8) 실내 소나타는 서주적 악장에다가 셋 또는 네 개의 춤곡이 붙여진 곡으로 역시 느림과 빠름이 교대되는 춤모음곡인데, 당시의 실내가 뜻하는 것은 궁정이나 학술모임에 따른 사적 연주회의 음악을 말한다. 실내의 음악이 자연히 공공회장 보다 개인의 가정에서 연주되어 작은 규모의 앙상블이 쓰여 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실내악적 의미가 적용되었다(박미경, 2006: 367).

9) 트리오 소나타는 일반적으로 그 이름과 달리 4명의 악기 연주자가 연주하는데, 2명의 선율 악기를 연주하는 독주자와 1명의 건반악기주자 그리고 베이스를 보강하는 선율악기인 첼로나 바순연주자 1명으로 구성된다.

dolce)-알레그로(Allegro)"의 3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악장의 마지막 46마디 정도가 삭제되어 삭제된 원본 그대로의 상태로 연주하거나 재구성되어 연주되기도 한다.

3곡의 <플루트와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는 모두 4악장 구성으로 되었으며 첫 번째 소나타인 <J. S .Bach Sonata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in C Major BWV 1033>은 바흐의 아들인 칼 필립 임마누엘의 필사보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이 작품은 "안단테(Andate)-알레그로(Allegro)-아다지오(Adagio)-미뉴에트(Minuet)"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소나타 <J. S .Bach Sonata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in e minor BWV 1034>은 바흐가 1724년에 오블리가토를 수반한 교회 칸타타를 집중적으로 쓴 시기에 작곡되었으며 "아다지오 마 논 탄토(Adagio ma non tanto)-알레그로(Allegro)-안단테(Andante)-알레그로(Allegro)"의 4악장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소나타인 <J. S .Bach Sonata for Flute and Basso continuo in E Major BWV 1035>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바흐가 쾨텐 시절에 작곡하여 1741년 포츠담의 프리드리히 대왕을 방문했을 때 가지고 간 것이라는 것과 포츠담을 방문하였을 때 로코코 양식[10]을 사용하여 새롭게 작곡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 곡은 "아다지오 마 논 탄테(Adagio ma non tanto)-알레그로(Allegro)-시칠리아노(Siciliano)-알레그로 아사이(Allegro assai)"로 구성된다.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1]와 같다.

---

10) 이 경향은 미술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로크의 웅대 ·심원 ·호화로움에 비하여 우아 ·섬세 ·경쾌함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로코코는 전체적으로 바로크의 양식을 이어받아 그것을 세련된 장식적 디테일로써 다듬어나간 점에서 바로크 후기의 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1]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bwv	작품명	반주형태
1013	Partita a minor for Solo Flute	무반주
1020	Sonata g minor	Harpsichord
1030	Sonata b minor	
1031	Sonata Eb Major	
1032	Sonata A Major	
1033	Sonata C Major	Basso continuo
1034	Sonata e minor	
1035	Sonata E Major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작곡할 당시에는 이미 어느 정도 플루트의 개량이 이루어져 밝고 풍부한 음색을 효과적으로 작품에 사용할 수 있었다. 바흐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에서 '단일 키 플루트(Single key flute)'에 가장 효과적인 조성인 D Major로 작곡하여 완전한 반음계인 2 옥타브를 넘나드는 곡을 작곡하였는데, 만약 바흐의 생일 칸타타(J. S. Bach Birthday Cantata BWV 208)가 협주곡보다 먼저 작곡되지 않았다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은 '단일 키 플루트'를 위해 작곡된 최초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보이드, 2004: 49). 바흐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1번부터 4번까지 화성적인 차원에서 바이올린의 솔로 선율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로악기인 리코더를 사용하였는데,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부터는 음정 조절이 가능한 가로 플루트를 사용하였다.

2.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분석 및 고찰

1) 작곡 배경

(1) 바로크 협주곡

<브란덴브루크 협주곡>은 바흐의 대표적인 세속 기악음악으로 총 6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주곡(Concerto)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 콘체르타레(Concertare)의 '싸우다', '겨루다', '경쟁하다'라는 뜻과 이탈리아어인 콘체르타레(Concertare)의 '타협하다', '동의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17세기 말 '협주곡'이란 기악형식이 처음 등장하여 오케스트라 음악에서 중요한 양식이 되었다(그라우트, 1960: 561).

협주곡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우선 바로크 음악양식의 특징인 통주저음(Basso Continuo)을 사용하며, 장조와 단조의 조성적 음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립된 여러 악장을 하나의 긴 작품으로 조직하는 작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요소를 모두 결합하여 탄생한 협주곡이라는 양식은 크게 독주협주곡과 합주협주곡의 두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독주협주곡(Solo Concerto)으로 하나의 악기를 오케스트라와 교대로 대조시키는 양식을 뜻하며 고전시대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협주곡의 의미로 사용된다. 두 번째 합주협주곡(Concerto Grosso)은 솔로 악기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앙상블(콘체르티노)과 대규모 앙상블(콘체르토 그로소)사이의 대조가 두드러지는 방식이다(Grout, 1960: 431). 이 양식은 '트리오소나타(Trio Sonata)'[11]에서 발전된 것으로 콘체르티노(Concertino)[12]는 보통 두 대의 바이올린과 이를 반주하는 첼로와 콘티

---

11) 17세기 중반과 후반의 이탈리아 소나타의 관습적인 악기 구성은 선율을 담당한 두 개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누오(basso continuo)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바로크음악 내내 표준적으로 쓰였던 이러한 편성을 '트리오 짜임새(trio texture)'라고 하며, 이러한 짜임새로 작곡된 곡들을 '트리오 소나타'라고 부른다.

12) 합주협주곡(concerto grosso)에서 리피에노와 대비되는 작은 규모의 독주 악기그룹을 말한다.

누오, 즉 '트리오소나타'를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들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구성에 다른 솔로 현악기나 목관악기가 첨가되거나 현악기를 대신하여 편성할 수도 있다(Grout, 1960: 431). 솔리(Soli) 부분을 콘체르티노가 연주하고, 투티(Tutti) 또는 리피에노(Ripieno)는 콘체르티노와 리피에노가 함께 연주하여 이 대조적인 두 그룹은 음향과 음색, 음량 등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2)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바흐가 남긴 협주곡들 가운데서 최대 걸작일 뿐 아니라 '합주협주곡'이란 유형으로 분류되는 협주곡 가운데서도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작품으로 평가된다. '합주협주곡'이란 바로크 시대의 여러 협주곡들 가운데 한 가지 형태로, 독주자가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음악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협주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흔히 협주곡은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기악곡'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런 정의는 주로 고전주의 시대 이후의 음악에 주로 통용되며 그 이전의 음악, 즉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 있어서는 협주곡의 종류만도 '관현악 협주곡'(Orchestral Concerto), '합주 협주곡'(Concerto Grosso), '독주 협주곡'(Solo Concerto) 등 다양하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독주 그룹과 합주 그룹이 대비되는 '합주 협주곡'으로 분류되지만,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단지 합주 협주곡 유형으로 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 바흐 당대에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악기편성이 다 동원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놀랍다. 악상의 다양함과 화려함도 대단하지만, 트럼펫과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이 독주 악기로 사용되는 제2번이나 바이올린 파트가 완전히 빠져 버린 제6번 등, 상상을 초월하는 악기 편성법이야말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의 특별한 점이다.

바흐의 여섯 곡의 협주곡들이 '브란덴부르크'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1721년에 바흐가 이 작품들을 브란덴부르크 공 크리스티안 루트비히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음악 애호가인 브란덴부르크 공은 바흐에게 작품을 의뢰하였는데, 바흐는 쾨텐 공의 궁정 악단을 위해 작곡해두었던 6곡의 협주곡을 정리해서 브란덴부르크 공에게 헌정하기로 했다. 브란덴부르크의 크리스티안 루트비히 공은 바흐의 협주곡들을 몹시 마음에 들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협주곡들을 연주하려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궁정악단의 멤버들만으로 이 곡을 연주할 수 없었다. 따라서 브란덴부르크 궁정악단의 편성이 곧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의 편성이 되었다. 이 작품의 악보 초두에 바흐가 남긴 헌정문은 다음과 같다(보이드, 2004: 25-26에서 재인용).

고명하신 크레티엥 루이 브란덴부르크의 후작 전하께
2년 전 고귀하신 , 당신의 명을 받들어 당신 앞에서 제 작품을 연주할 수 있었던 기회와 하늘이 내려 주신 저의 작은 음악적 재능에 대한 당신의 만족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명하신 당신께 작별을 고할 때, 저의 작품 몇 개를 선사받고 싶다는 당신의 요구는 저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요구에 따라서, 몇 개의 악기를 위한 저의 협주곡을 고명하신 당신께 헌정함으로써 저의 미천한 임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세상에 이미 알려진 당신의 고귀하고 세련된 음악적 취향으로 제 협주곡의 결점을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이 곡에서 표현하려고 애쓴 당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가장 겸허한 진심을 당신의 자비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하신 후작님! 저에 대한 당신의 지속적인 자비를 감히 요청하면서, 소중한 기회에 당신께 더욱 흡족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청합니다.
고귀하신 후작님, 당신의 가장 미천한 종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쾨텐, 1721년 3월 24일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비발디의 협주곡 양식에 영향을 받았으나, 악장 구성이나 악기 편성 등에 있어서는 새로운 발전을 보여준다(백선미, 2017: 13). 바흐는 이 작품을 현악기 오케스트라와 목관악기를 위해 작곡하였는데, 이 곡이 소규모 악기 편성인 이유는 당시 바흐가 봉직하고 있던 쾨텐 궁의 오케스트라가 18명의 단원을 보유한 작은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이다. 쾨텐 궁 궁정악단이 실제 연주할 곡을 작곡하였기 때문

에 이 악단의 구성에 맞게 소규모 합주곡을 작곡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은 다양한 악기를 편성하고 바흐만의 독창적인 작곡기법을 활용하여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못지않은 위대함을 보인다(음악지우사, 2000; 보이드, 2004; 나주리, 2009: 37-38, 백선미, 2017).

(3) 악곡개요 및 악기편성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제 1번과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곡 모두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작품에서 독주 악기 그룹(콘체르티노)이 다양한 악기로 편성되어, 곡마다 주제 선율이 다양한 음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우선 협주곡 제1번만 해도 오보에 세 대, 호른 두 대, 바이올린 한 대가 독주 그룹의 구성악기로 참여하며 다채로운 음색을 만들어낸다. 흥미로운 것은 독주악기들 중 바이올린은 일반적인 바이올린보다 단3도 높게 조율된 '피콜로 바이올린'이란 점이다. 작고 귀여운 피콜로 바이올린은 2악장에서 크게 활약하며 독특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 협주곡은 독주악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독주 파트가 그다지 기교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통일감과 균형미가 강조되어 있다.

반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2번은 독주악기인 바이올린과 오보에, 리코더(혹은 플루트), 트럼펫이 화려한 기량을 뽐내고 있어 협주곡 1번과는 그 성격이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이 곡에서 트럼펫은 매우 높은 음역에서 고난도의 기술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트럼펫 연주자를 구하지 못하면 연주가 불가능한 작품이기도 하다. 트럼펫의 화려함이야말로 이 곡에서 돋보이지만, 다른 세 명의 독주자들도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기량을 발휘하는 부분이 많아 각 악기의 개성을 잘 느낄 수 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3번은 독주 그룹과 합주 그룹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합주협주곡이라 할 수 없으며 현악기들의 동질적

인 울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그리고 첼로가 각각 3성부로 나뉘는 다층적 성부 구조 덕분에 현악 앙상블의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곡의 매력이라 하겠다. 당당한 1악장에 이어 2악장에서 첨발로가 짧은 카덴차를 연주하고 나면, 3악장에서 현악기들이 차례차례 주제를 모방하면서 활기차게 전개된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4번은 겉보기에는 합주협주곡이지만, 1·3악장에서 독주 파트의 활약이 대단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독주협주곡'에 더 가깝다. 두 대의 리코더와 한 대의 바이올린이 독주자로 등장하는 이 곡에서는 특히 1악장의 독주 바이올린의 기교가 매우 화려해 종종 리코더를 압도하기도 한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독주 역시 바이올린과 플루트, 첨발로의 세 악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독주 악기가 다른 독주 악기들을 압도하는 점에서 협주곡 4번과 비슷하다. 이 곡은 협주곡이라는 장르에서 처음으로 첨발로가 주역을 맡는 독특한 곡으로, 곡의 첫 부분은 독주 그룹과 합주 그룹이 서로 대비되면서 합주협주곡과 같은 인상을 주지만 1악장 후반부에 무려 65마디에 이르는 화려한 첨발로 카덴차가 있어 첨발로 주자의 뛰어난 기량을 요하는 작품이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6번은 현악 앙상블에서 결코 빠지는 법이 없는 바이올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음향적 독특함을 보여준다. 이 곡은 두 대의 비올라, 두 대의 비올라 다 감바, 첼로와 콘티누오를 위한 작품으로, 고음악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둡고 중후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바흐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에서 독주 악기 그룹으로 사용한 악기들은 바로크 시기 다른 작곡가들의 협주곡에서도 독주 악기로 사용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여러 악기들이 하나의 협주곡에 모두 사용된 경우는 흔치 않다(보이드, 2004: 45). 여섯 개 곡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6개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형식 및 악기편성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악장	4악장	3악장	2악장	3악장	3악장	3악장
독주 악기	2호른 3오보에	트럼펫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3바이올린 3비올라 3첼로	바이올린 2플루트	플루트 바이올린 첨발로	2비올라
리피에노	바이올린 비올리노피콜로 비올라 바순 첼로 베이스	2바이올린 비올라 베이스 첨발로 첼로	베이스 첨발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첨발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첨발로	첼로 베이스 첨발로
형식	Concerto grosso	Concerto grosso	Ripieno concerto	Concerto grosso	Concerto grosso	Ripieno concerto

주: 백선미(2017)의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

1개의 협주곡에서 목관악기와 현악기를 결합하는 것은 독일 작곡가들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비발디도 비슷하게 여러 악기들 간의 배합을 시도했으며 그의 협주곡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의 악기편성과 거의 동일한 악기 구색을 갖춘다[13].

13)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협주곡으로, 빠름, 느림, 빠름의 3악장의 구성을 취하여 독주와 합주가 교대로 나타나는 리토르넬로 형식에 의해서 씌여진 협주곡 스타일은 바흐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 수많은 협주곡 중에서 《사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 중의 바이올린 협주곡집과 《조화의 영감》이라는 표제가 붙는 작품 3의 12곡이 유명하며, 450곡의 협주곡을 작곡했다.

2) 작품분석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은 총 세 악장의 “빠른 악장 - 느린 악장 - 빠른 악장(i. Allegro - ii. Affettuoso - iii. Allegro)”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주협주곡 편성으로 콘체르타토(독주악기)와 리피에노(합주악기)로 나뉘는데, 콘체르타토엔 플루트, 바이올린, 첨발로가 리피에노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사용된다. 콘체르타토에 포함된 플루트는 독주악기로만 사용되며 바이올린은 독주악기로 주로 사용되나 튜티 악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첨발로는 보통 화성반주로 사용되는데 제 5번에서 처음으로 독주악기로 격상되어 협주악기군 중 하나로 등장한다. 작품 분석에서는 각 악장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음악적 구조와 특징들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나주리, 2009; 보이드, 2004).

(1) 1악장 - Allegro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바로크, 초기 고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협주곡은 ‘리토르넬로(Ritornello)’ 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토르넬로 양식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리토르넬로(튜티)의 영역과 독주악기(군)의 영역이 교대로 연주되어 대조를 이루는 점, 둘째는 곡의 맨 처음의 리토르넬로에서 제시된 음악적 재료들이 곡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1악장 알레그로는 이 곡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악장이다. 투티 리토르넬로가 두드러지고 솔로 악기 군과 교대된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비발디 협주곡의 영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악장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투티 리토르넬로와 솔로 에피소드가 교대되는 방식이 비발디 협주곡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조와는 달리 보다 세심하고 긴밀한 연관 관계를 형성한다.

이 1악장 역시 리토르넬로 양식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이 곡이 완전히 리토르넬로 형식에 의해 쓰여졌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전형적인 리토르넬로 양식의 곡은 합주부(Tutti)와 독주부가 모티브나 조성을

달리 사용하여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리토르넬로 양식이 아닌 고전시대 이후의 소나타, 리트, 론도 등의 형식에서도 모티브나 조성을 활용해 곡이 여러 부분으로 분명하게 나눠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곡은 이 다양한 기준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 구분 짓기에 어려움이 많고,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함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가 사용한 악상 기호, 그리고 플루트의 등장 여부를 기준으로 큰 두 부분의 명확한 구분이 드러난다.

이 곡에서 플루트는 솔로 부분에서만 등장하고 리토르넬로 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솔로와 리토르넬로 부분의 악상 기호 사용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두 부분의 경계를 강화한다. 리토르넬로 부분은 포르테 (f), 플루트 솔로 부분에서 리피에노 악기가 등장하는 곳에는 피아노 (p) 또는 피아니시모 (pp)가 표기되어 있다. [표3]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1악장의 리토르넬로 부분과 솔로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에 활용된 모티브를 정리한 것이다. 리토르넬로 부분은 총 9개(R1, R2, R3, R4, R5, R6, R7, R8, R9), 솔로 부분은 총 9개(S1, S2, S3, S4, S5, S6, S7, S8, S9)로 나뉜다. 솔로 부분은 리토르넬로의 음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차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하고, 새로운 독립적인 선율이 등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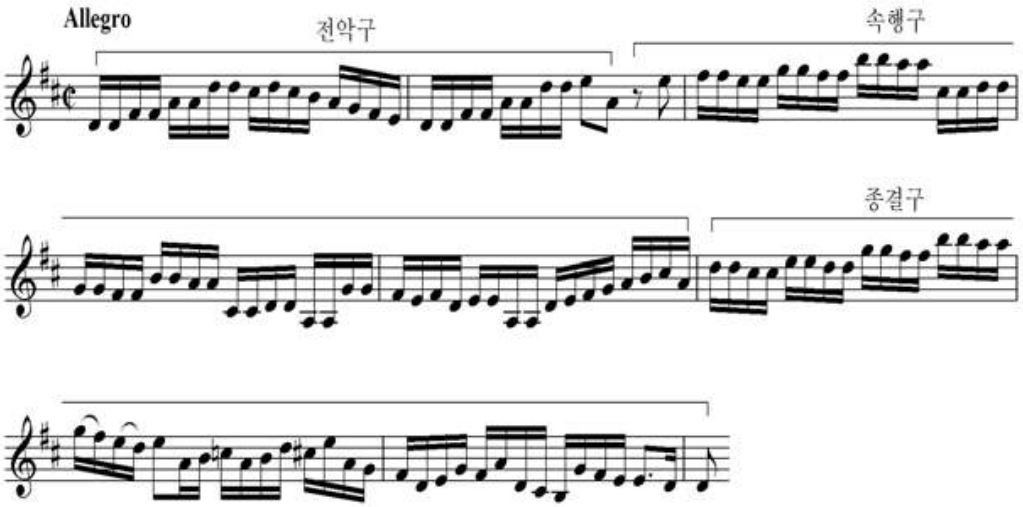
[표3]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1악장 리토르넬로 부분과 솔로

마디	영역	활용되는 모티브
1-8	Ritornello 1 (완전한 형태)	(등장할 모든 모티브들의 재료)
9-18	Solo 1	a
19-20	Ritornello 2	
21-28	Solo 2	b
29-31	Ritornello 3	
31-39	Solo 3	a (첨발로-c)
39-42	Ritornello 4	b
42-49	Solo 4	a
50-58		b
58-60	Ritornello 5	
60-70	Solo 5	c+b

마디	영역	활용되는 모티브
71-80	Solo 6	n
81-92		X(새로운 선율)
93-100		
100-102	Ritornello 6	a
102-110	Solo 7	a
110-120		a
121-125	Ritornello 7	a, b
126-136	Solo 8	c+b, a
136-139	Ritornello 8	b
139-146	Solo 9	a
147-153		X(새로운 선율)
154-218	Cadenza	a, etc.
219-227	Ritornello 9 (완전한 형태)	등장했던 모든 모티브들의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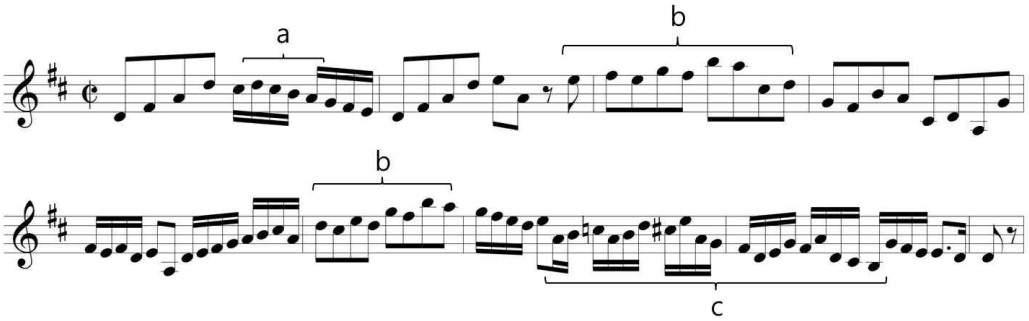
<악보1>은 완전한 리토르넬로 주제가 제시되는 1악장 알레그로의 시작 부분이다. 이 악장에서는 두드러지는 리토르넬로와 솔로 에피소드의 교대가 세심하고 긴밀한 연관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악보1> 1악장 완전한 리토르넬로 주제, 마디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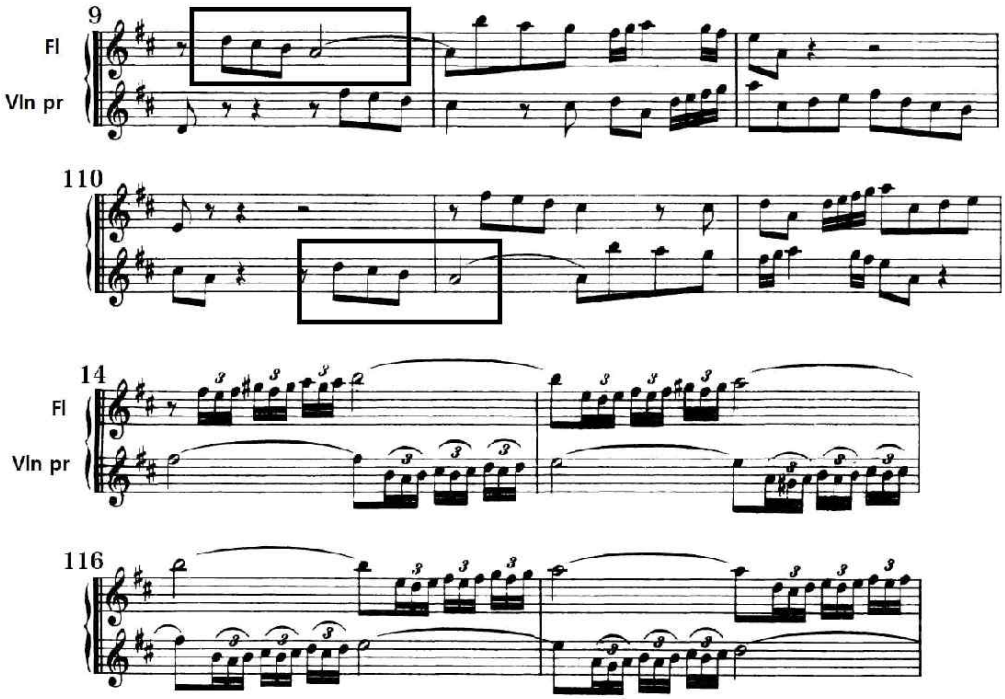
먼저 리토르넬로의 주제(<악보 1>)는 전악구(마디 1-2)와 속행구(마디 3-5), 종결구(마디 6-9)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속행구와 종결구는 전악구의 확대 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나주리, 2009: 31). 바이올린 성부가 16분음표 음형을 쉬지 않고 연주하며 상당히 짧은 리토르넬로로 1악장이 시작된다. 일반적인 리토르넬로 양식의 첫 리트로넬로에 비해 길이가 상당히 짧다. 그러나 이 8마디에서 제시되는 음악적 재료들이 곡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뒷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속행구와 종결구는 전악구의 확대 버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완전한 리토르넬로 주제는 뒤에 따르는 솔로 음악에 모티브가 되어 음악이 끝날 때까지 영향을 준다. 리토르넬로에서 차용된 모티브의 원형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악보2> 리토르넬로에서 차용된 모티브 원형



모티브의 원형들 중 '모티브a'는 첫 번째 솔로(S1)에서 사용되었다. 처음 등장하는 플루트의 하행하는 네 음 모티브가 리토르넬로의 첫째마디 3-4번째 박의 하행하는 스케일에서 왔다는 사실을 다음 악보(악보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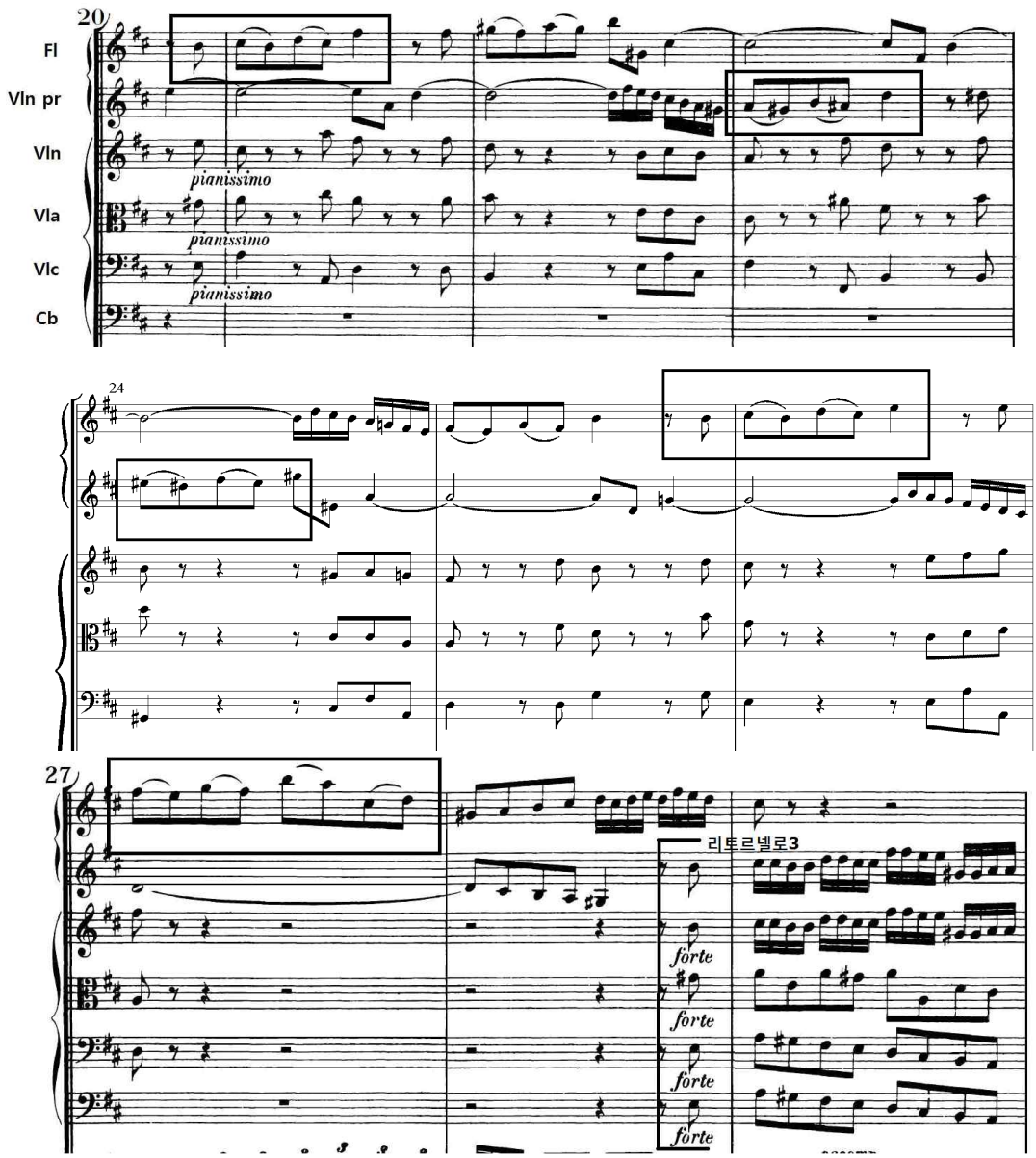
<악보3> 모티브a가 사용된 solo 1, 마디 9-15, 마디 110-117



위의 악보3에서 보면, 9-13 마디에 걸쳐 '모티브a'가 독주 플루트와 바이올린에 의해 번갈아 제시되며 주제 선율을 주고 받는다. 이 선율은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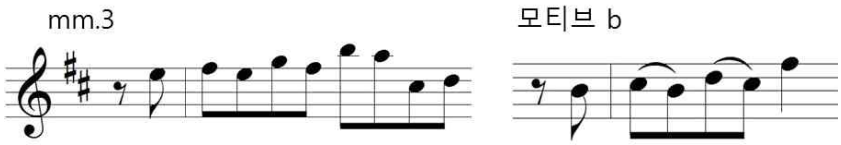
한 여섯 번째 솔로 부분(S6)의 마디 110-115에서 악기를 바꾸어 전조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주제 선율을 주고받는 방식은 플루트와 독주 바이올린 사이에서 종종 볼 수 있다. 14마디의 셋 잇단 음형도 플루트와 독주 바이올린이 교대로 연주하는데, 이 음형은 S6의 마디 116에서 등장한다.

<악보4> 모티브 b가 사용된 Solo 2, 마디 2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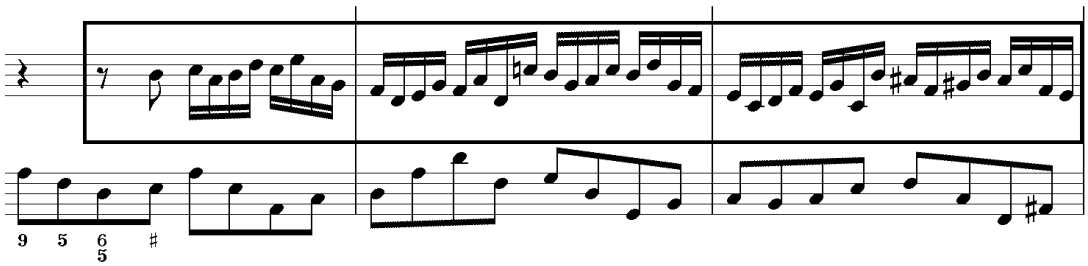
<악보4>에서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8분 음표를 2개씩 묶어 이음줄로 연결한 음형은 '모티브b'가 사용된 두 번째 솔로 부분(S2)이다. '모티브a'의 순차적으로 하강하는 선율과는 반대로 상승하는 선율로, 모티브 간에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악보 5> 리토르넬로 원형과 '모티브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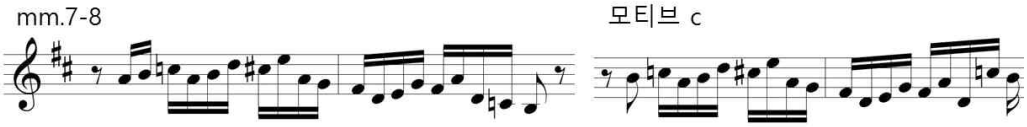
플루트가 20마디부터 이 음형을 연주하는 동안 독주 바이올린은 당김음 리듬을 연주하고 23마디에서 바이올린이 주제선율을 받아 28마디까지 선율을 주고받으며 동형 진행한다. 리피에노 악기들은 20-28마디까지 피아니시모(pianissimo)로 음량이 급격하게 작아지며 독주 악기들의 선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배경 역할을 하고 29마디에서 포르테(forte)로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세 번째 리토르넬로로 전환된다.

<악보6> 모티브 c가 사용된 첼발로 파트, 마디 3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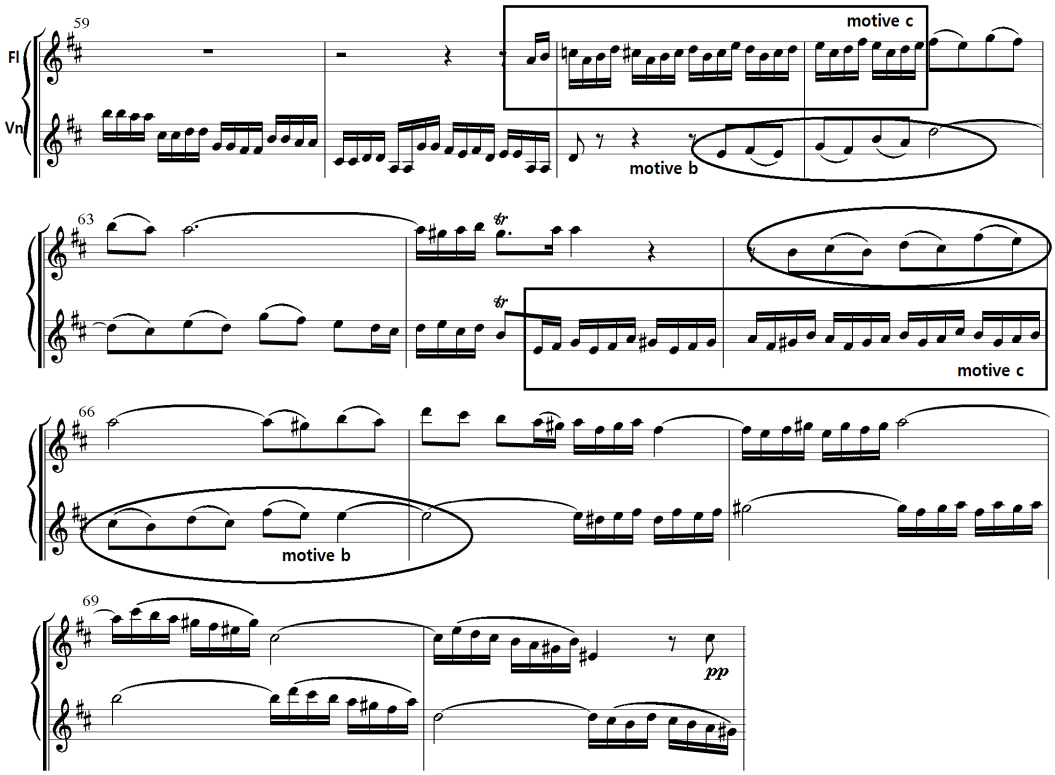


31마디의 3번째 박자부터 첼발로에서 등장하는 '모티브c'는 리토르넬로의 7마디 세 번째 박에서부터 등장하는 음형에서 왔다. '모티브c'가 독립적인 모티브로는 31마디에서 처음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악보7> 리토르넬로 원형과 ‘모티브c’



<악보8> 모티브c와b가 결합된 Solo 5, 마디 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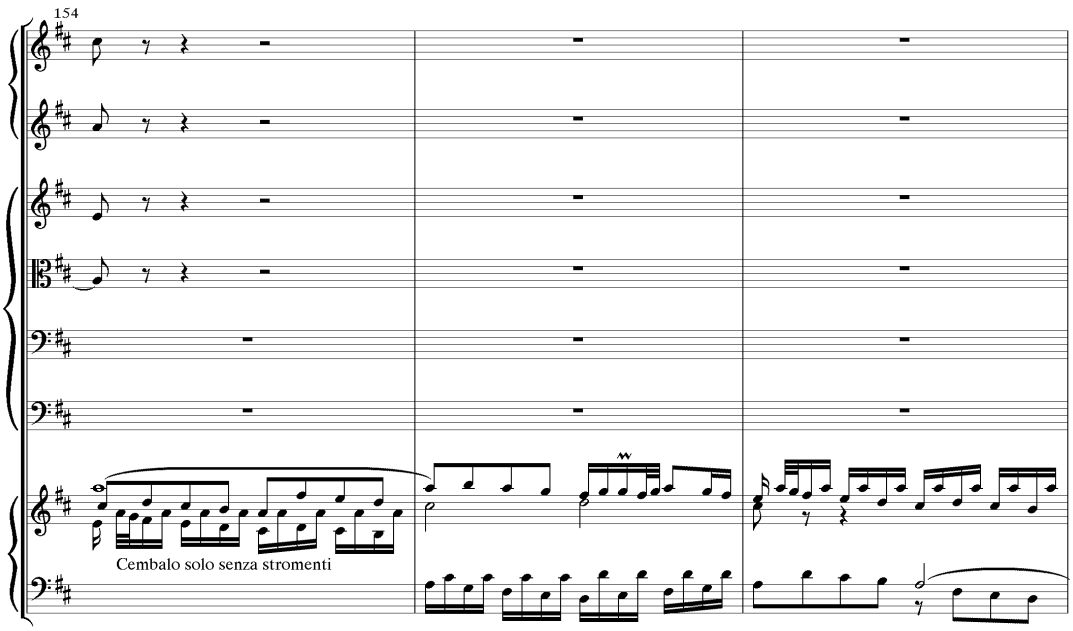


앞의 31마디에서 첼발로가 연주했던 ‘모티브 c’와 ‘모티브 b’를 결합한 선율재료가 다섯 번째 솔로 부분(S5)이 시작되는 60-64마디에서 등장한다. 플루트는 61마디에서 ‘모티브c’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은 아래성부에서 대선율(對旋律)[14] ‘모티브b’를 연주한다. 이것을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번

14) 넓은 의미로는 대위적 서법(書法)에 있어서, 어떤 선율 성부에 대위(對位)하는 다른 성부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대위법의 실습과정에 있어서, 주어진 정선율(定旋律)에 부가되는 성부를 말한다.

갈아 노래한 후 변형된 16분 음표 음형을 통한 동형진행 에피소드가 진행되며 이것을 통해 f# minor로 전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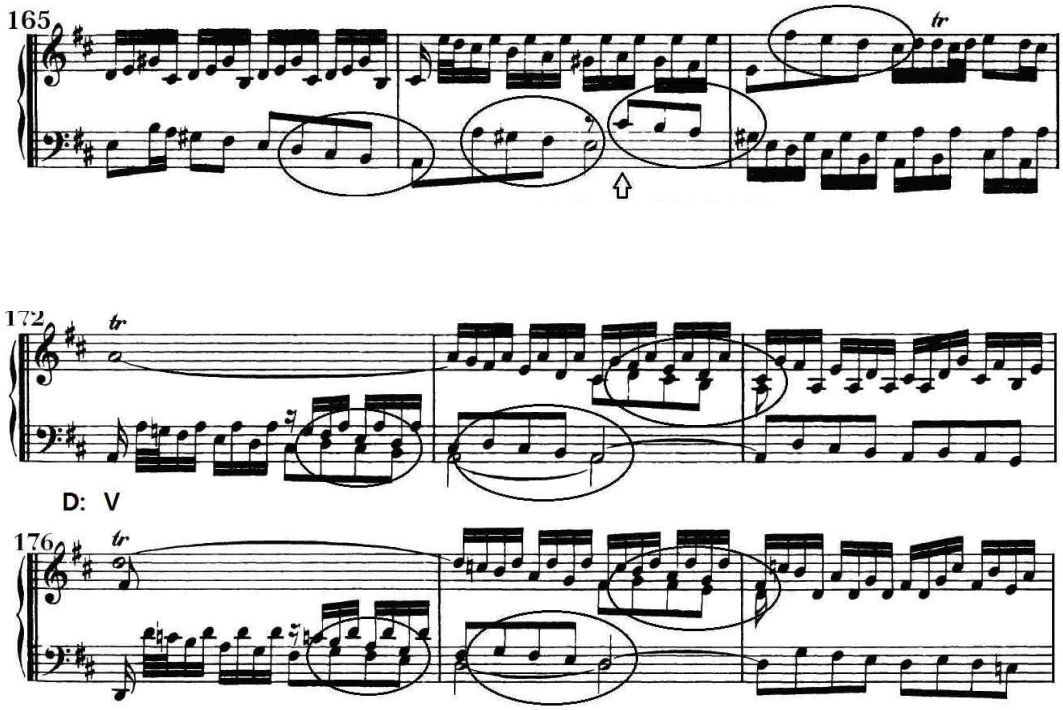
<악보9> 첨발로 카덴자 시작부분, 마디 154-156



<악보9>는 이 악장에서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첨발로 카덴자의 시작 부분이다. 이 시대의 음악에서 흔치 않은 첨발로의 카덴자인데, 154-219마디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악장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첨발로를 지속저음 악기에서 솔로악기로 부상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카덴자는 짧은 음가의 패시지들, 반음계적 화성 등을 통해 굉장히 기교적이고 화려하게 연주된다.

바흐의 첨발로 카덴자는 1악장의 마지막 리토르넬로 직전 여덟 번째 솔로 부분에서 등장한다. 첨발로 단독으로 가능한 폴리포니 기술을 긴 패시지를 통해 드러내며, 이것은 연주자의 기교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하인리히 크리스토프 코흐(Heinrich Christoph Koch, 1749-1816)도 자신의 저서『작곡연구 안내서』에서 카덴자는 리토르넬로 형식을 사용한 협주곡 1악장의 마지막 리토르넬로 직전에 등장한다고 설명했다(김용환, 2010: 118에서 재인용).

<악보10>첨발로 카덴자, 마디 165-167, 마디172-174 , 마디 176-178



위의 <악보10>은 첨발로 카덴자에서 '모티브a'를 활용한 섹션들로 기교적인 패시지 안에서 첫 번째 솔로 부분(S1)의 새로운 주제적 선율을 3성부 변주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상 1악장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보면, 합주부와 독주부의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첫 Tutti에서 제시된 재료들이 곡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리토르넬로 양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첫 Tutti에서 등장하지 않은 재료의 출현, 첨발로의 카덴자, 굉장히 짧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Tutti와(가장 긴 것이 5마디), 다양한 재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 등을 통해 바흐가 기존의 양식을 활용함과 동시에 본인의 독창성을 작품 안에서 실현시킨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2악장 - Affettuoso

2악장은 ‘아페투오소’ [15]라는 구체적인 연주 지시가 적혀 있는 악장이다. 아페투오소는 바흐의 악보에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학자들은 ‘아페투오소’ 지시가 바흐가 최종 버전에서 많은 악구를 첨가한 이음줄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보이드, 2004). 또한 2악장은 리피에노 없이 독주악기군(바이올린, 플루트 ,첼발로)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악장이며 선행하는 악장과 동일하게 리토르넬로 형식을 근간으로 한다.

플루트와 바이올린은 서로 모방하거나, 한 악기가 긴 음가를 지속할 때 다른 악기가 대선율을 연주하거나, 3도, 6도 등의 협화 음정을 채워주는 양상을 띠며 첼발로는 이 역할과 함께 바소 콘티누오를 담당한다. 이 악장에서는 독주악기와 협주악기 사이의 대조가 없다는 점에서 투티와 솔로의 대비가 부재하기 때문에 '솔로 에피소드'는 '에피소드'로 대체된다. [표4]는 2악장 리토르넬로 부분과 에피소드 부분을 구분하고 각 부분의 조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4]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2악장 리토르넬로와 에피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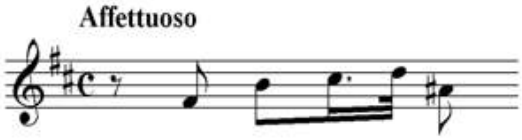
마디	구조	조성
1-5	리토르넬로 1	b단조
5-10	에피소드	b단조-D장조
10-14	리토르넬로 2	D장조
14-20	에피소드	D장조 -f#단조
20-24	리토르넬로 3	f#단조
24-30	에피소드	f#단조-e단조
30-34	리토르넬로	e단조-G장조
34-45	에피소드	G장조-b단조
45-49	리토르넬로	b단조

15) Affettuoso: 애정을 담아라는 이탈리아어로 악보에서 감정을 지니고 연주하라는 말.

여기서 리토르넬로 구조는 현악 앙상블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모든 에피소드 주제는 2개의 짧은 단편에서 유래한다. <악보11>은 2악장의 주요 동기들로 첫 4마디가 곡 중간에 완전히 동일하게 등장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모티브가 곡 전체에 걸쳐 활용된다.

<악보11> 2악장의 주요 동기

a.리토르넬로 주제의 동기, 마디1
motive a (바이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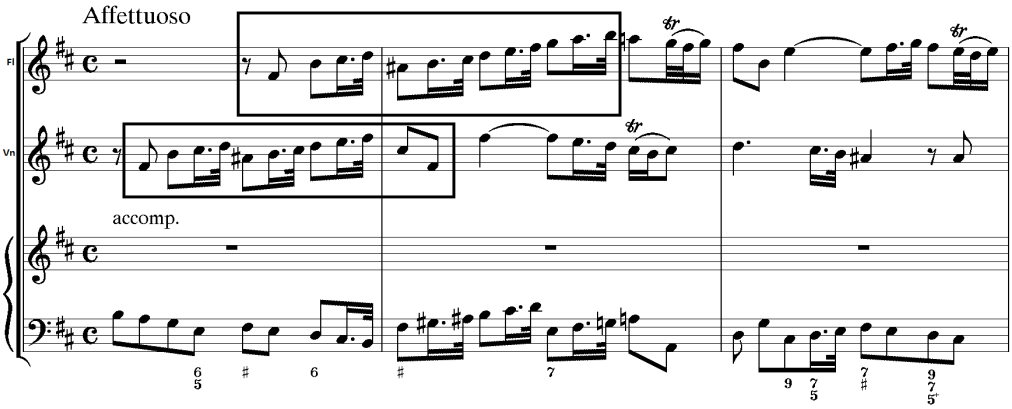


b.리토르넬로의 16분음표 동기, 마디4
motive b (플루트)

c.16분음표 동기의 변형(첨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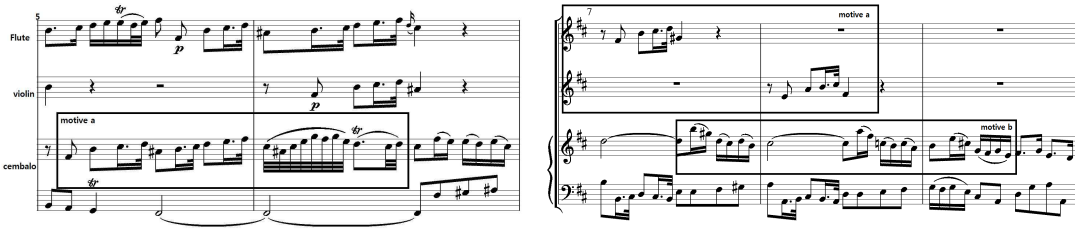
마치 서로 묻고 대답하듯이 집행되는 이 짧은 동기는 변형되거나 전위되며 주제선율을 이어나간다. 이 곡에서도 역시 바흐의 제시한 음악적인 재료들을 활용하는 것과, 그것을 곡 전체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들을 살펴볼 수 있다.

<악보12> 2악장, 마디 1-3



<악보12>는 2악장의 첫 악구이다. 첫 두 박자가 이 곡의 주요 동기로 사용되었으며 바이올린이 제시한 이 모티브를 플루트가 모방하는 것으로 곡이 시작되고 이에 선율이 붙여져 4마디의 악구를 이룬다. 여기서 등장한 상승하는 부점의 음형은 첫 악구의 바이올린과 플루트의 모방뿐만 아니라 첼발로의 베이스 부분에서도 이 리듬이 자주 쓰이고 있다. 이 주요 부점 리듬은 대부분 상행하는 음인 b-c#-d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13> 2악장, 마디 5-9



첼발로가 주요동기를 제시하며 악구가 시작된다. 모티브가 2마디에 걸쳐 제시된 후 7마디부터 동형진행형의 에피소드가 시작된다. 이 에피소드는 플루트, 바이올린의 모티브a와 여기에 응답하는 첼발로의 교대로 이루어지는데 마디 6의 셋째 박부터는 첼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마디 7-8에서는 한 마디 단위로 하행 동형진행을 이루게 되는데, 첼발로의 오른손에서는 16분 음표의 하행하는 음형에 의한 동형 진행이 등장한다. 이는 첫 번째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다른 에피소드들에서도 주요 음형이 된다.

2악장은 1악장보다는 훨씬 명료하고 단순하며 제3번과 제4번 협주곡을 제외한 다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들의 중간 악장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것과 같이 모방적 성부 진행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성부들의 모방진행이 아닌, 어떻게 간결한 구성 재료로부터 개별 동기들을 추출하여 이들을 다채롭게 가공, 결합시키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음'과 '대답' 동기는 단순하면서도 무척이나 부드럽게 감성을 자극하는 성격을 띤다. 결론적으로 2악장은 '갈랑양식(Gallant style)'[16]의 감각이 스며있는 동기적 발전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나주리, 2009:18).

(3) 3악장

3악장은 이 곡의 세 개 악장 중에서 형식적으로 가장 명료하다. 처음 주제의 제시부가 있고, 이것과 대조되는 부분이 등장하며, 마지막에 처음의 주제로 돌아오는 재현부가 있는 “A(1-78마디) - B(79-233마디) - A(233-310마디)” 형태이며, 이것은 청각적으로도 명료하게 구분이 된다. 다른 악장들과는 다르게 리토르넬로 양식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악장의 처음과 마지막의 A 부분은 78마디인 반면 중간 B 부분은 154마디로 이루어져 있어 두 배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3부분 구조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F장조)과 6번(Bb장조)의 3악장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악장의 A 부분에서는 푸가의 도입과 다 카포 형식을 실현하는 푸가의 반복을 볼 수 있다. 큰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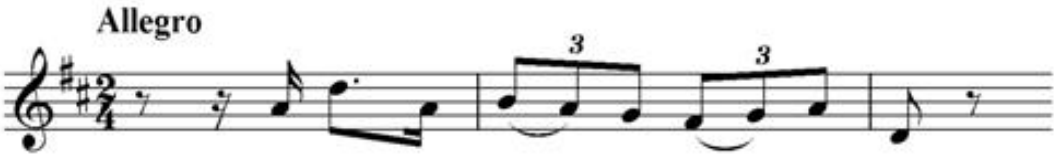
[표5]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3악장 구조

형식		마디수	조성
Section A	도입부	1-28	D Major
	제시부	29-63	
	종결부	64-78	
Section B	a	79-127	b minor
	b	128-180	
	c	181-232	
Section A		233-311	D Major

16) 바로크 시대 이후 프랑스에서 나타난 로코코 시대의 경쾌하고 우아한 양식을 말한다. 문화의 중심이 바로크 시대의 교회에서 왕후 귀족의 살롱으로 옮겨감에 따라 음악의 양식도 장중하고 견고한 바로크 스타일에서 로코코풍의 경쾌하고 우아한 것으로, 대위법적 작곡에서 화성중심의 음악으로 변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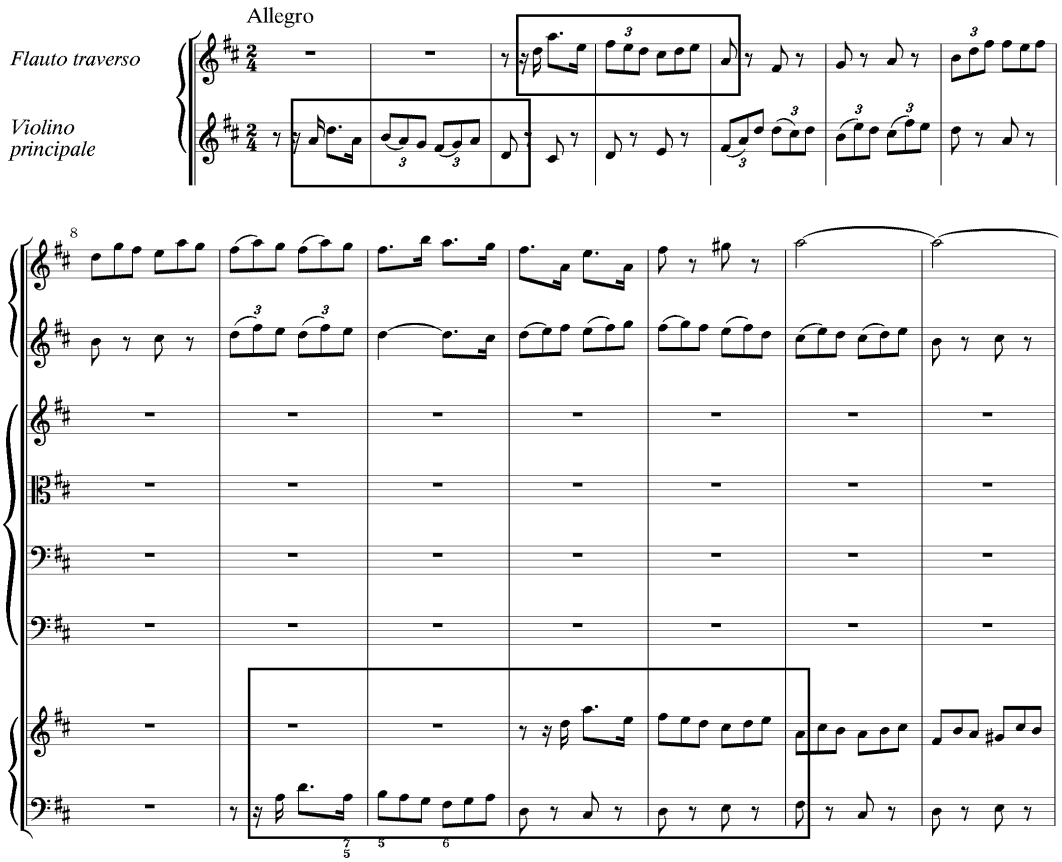
<악보14>의 아래 주제를 토대로 3악장의 푸가는 세 개의 전개부와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14> 3악장 푸가의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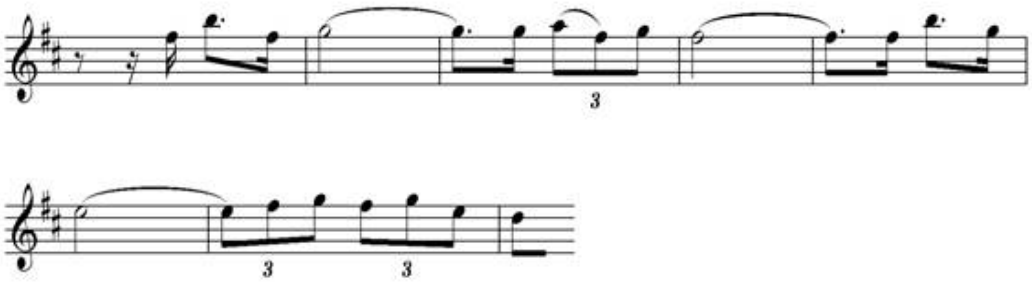
<악보15>는 이 곡의 주제가 제시되는 3악장의 시작 부분이다. 바이올린이 주제를 제시하면 플루트가 뒤를 이어 이것을 모방한다.

<악보15> 3악장, 1-13마디



푸가의 주제는 마디 1-2의 바이올린에서 제시되며, 2마디 길이를 가진다. 플루트는 마디 3-4에서 주제에 응답하고 마디 5-8은 마디 9에서 첨발로가 주제를 제시하기 전까지 연결하는 부분(Link)으로서, 또 다른 음형으로 상행한다. 마디 9-13에서는 처음에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주제와 응답을 제시한 형태를 첨발로의 왼손-오른손 관계로 재현하고 있다.

<악보16> 3악장 B부분의 주제



B부분은 플루트에 의해 주제가 제시되며 부점 리듬과 셋잇단음표 음형을 통해 푸가와는 대조적으로 정적으로 진행되어진다. 또한 B부분은 A부분보다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총 155마디로 정확히 푸가(78마디)의 두 배에 달하는 공간을 확보해 바흐 음악의 치밀한 구조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마디 233-310은 Section A와 완전히 동일하다.

3악장을 정리해보면 이 악장은 A-B-A의 전형적인 3부형식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이전 악장들과는 달리 주어진 재료를 복잡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특히 각 악기들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카논, 스트레토, 선율 주고받기 등 모방기법의 양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3) 플루트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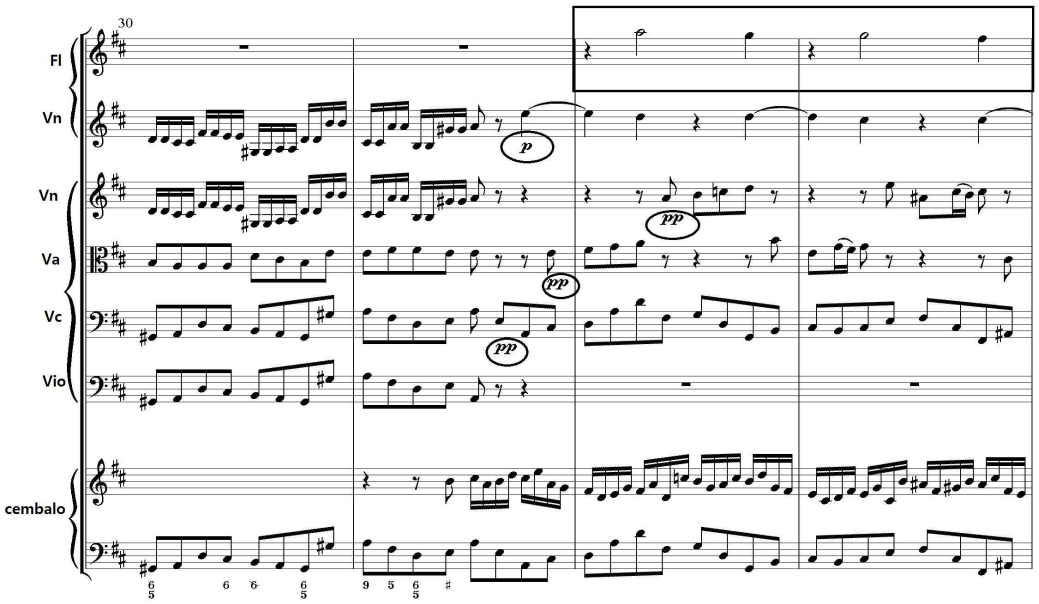
위의 분석을 통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에서 플루트는 다른 어떤 악기들보다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플루트의 활용 부분에서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에서 나타난 플루트의 역할과 특징적인 주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곡과 같은 시기에 작곡된 다른 곡들과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에서 첨발로가 건반악기 최초로 협주곡의 솔로악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로 첨발로의 역할에 대해 많이 주목한다. 그러나, 제 5번 협주곡에서 전체적인 중심을 잡고 음악을 주도하는, 즉 주선율을 맡고 있는 악기는 단연 플루트이다. 바흐는 중요한 선율이 나오거나 리토르넬로와 비교되는 솔로 부분이 연주될 때 바이올린보다 플루트를 독주악기로서 더 많이 활용하였다. 튜티와 솔로를 오가며 연주한 바이올린과 다르게 플루트는 완전한 솔로악기로 사용되었다.

또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5번에서 리코더가 아닌 가로플루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바흐가 이곡에서 가로 플루트 특유의 음색과 테크닉을 필요로 했다는 것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상 이 곡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플루트가 솔로로서 쓰였는지를 다음 악보들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악보17> 플루트 솔로 연주

a. 1악장 세 번째 솔로 (S3), 마디 30-33



1악장에선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함께 솔로 선율을 주고받거나 동형진행 하는 패시지가 많다. 그러나 세 번째 솔로 부분(S3)에서 바흐는 플루트를 제외한 리피에노 악기들은 피아니시모, 독주 바이올린에게도 피아노를 부여했다. 음량 조정이 불가능한 첨발로를 제외한다면, 이 부분은 플루트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솔로는 37마디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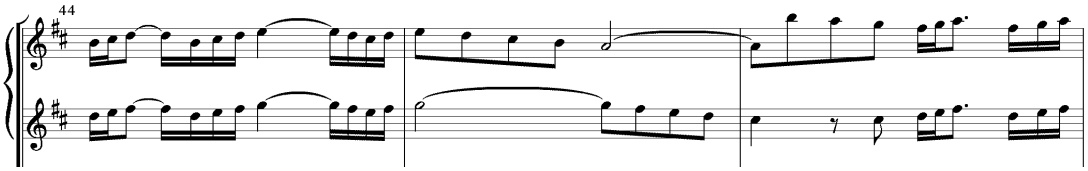
다음은 1악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동형진행 하여 솔로로 연주되는 부분이다. 주로 3도 위나 아래에서 선율을 모방하는 형태로 연주되며 완전히 같은 선율을 모방하기도 한다.

<악보18> 바이올린과 동형진행 솔로 연주

a. 1악장 , 마디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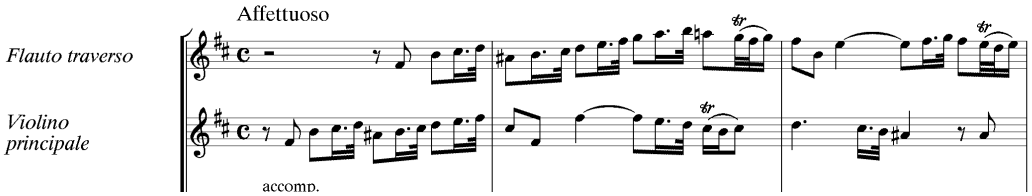
<악보18>은 1악장 첫 번째 솔로 부분(s1)이다. 순차 하행하는 선율로 바이올린과 주제 선율을 주고받으며 동형진행 하고 있다. 바이올린은 3도 위에서 등장하여 연주한다.

b. 1악장, 마디 44-46



위의 <악보18-b>는 네 번째 솔로 부분(S4)으로 순차 하행하는 주제적 선율을 보여준다.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번갈아가며 3도 위에서 등장하고 '모티브 a'가 활용되어 마찬가지로 동형진행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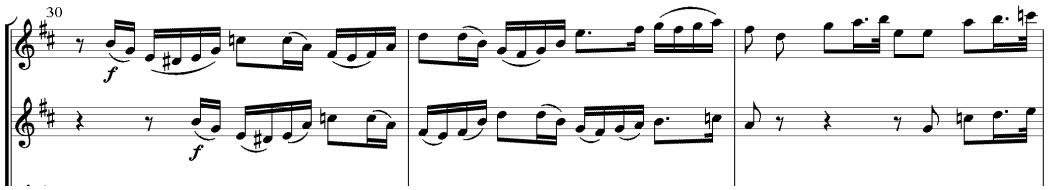
c. 2악장 마디 1-4



위는 2악장의 첫 악구이다. 첫 두 박자가 곡의 주요 동기가 되며 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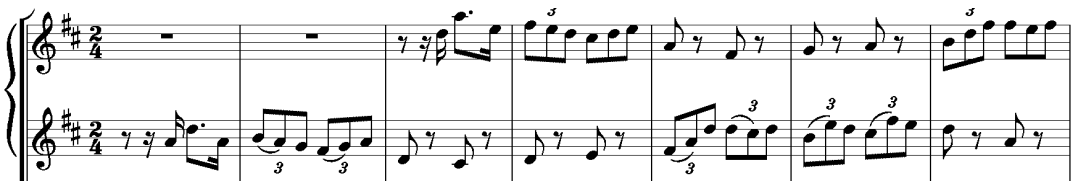
올린이 제시한 이 동기를 플루트가 모방하는 것으로 곡이 시작되고 이에 선율이 붙여져 4마디의 악구를 이룬다.

d. 2악장 30-33 마디



플루트와 바이올린의 완전한 동형진행 에피소드로 32-33마디는 주제 동기에 의한 진행이며, 이것을 통해 G Major로 전조한다.

e. 3악장 1-7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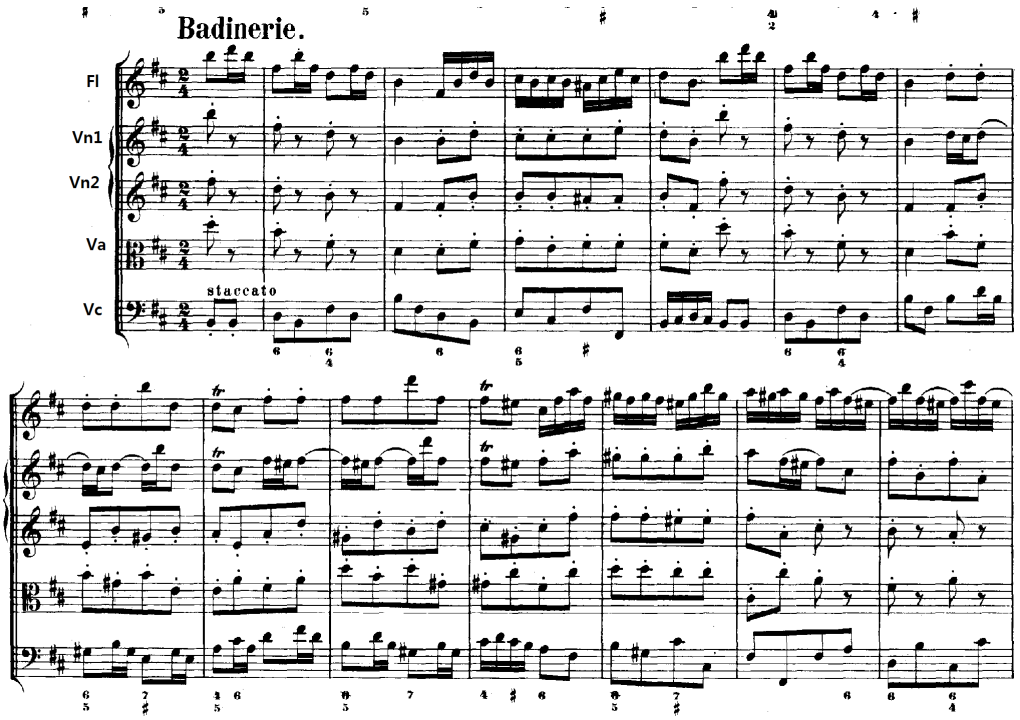
1, 2악장에서와 동일하게 주요 동기가 되는 멜로디를 바이올린이 먼저 연주하고 2마디 뒤에 플루트가 4도위에서 동형진행하게 연주한다. 위와 같이 악장별로 플루트의 선율 진행들을 살펴보면 플루트는 종종 선율을 강조하기위해 바이올린과 같은 음을 연주하거나 혼자 솔로를 담당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솔로주제를 3도 아래나 위에서 바이올린과 함께 주고받는 동형진행 솔로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

두 솔로악기의 분명한 차이점은 바이올린은 솔로와 리피에노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플루트는 독립적인 솔로 선율만을 연주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이 당시에 악기발전의 한계로 3옥타브 고음역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바흐의 다른 작품들과 비슷하게 3옥타브의 높은 음역대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악기의 음색은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나 화려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주법이 어렵지는 않았다.

바흐가 솔로 플루트를 위해 작곡한 총 두 개의 협주곡 중 하나인 <관현악 모음곡 2번(Orchestral Suite No.2 BWV 1067, in b minor)>과 플루트의 역할을 비교해보면 <관현악 모음곡>에서 플루트는 총 7개의 악장 중 마지막 악장인 Badinerie에서만 솔로로 쓰였다.

<악보19> Orchestral Suite No.2 BWV 1067 , Badinerie 마디1-14



이 악장에서만큼은 플루트가 매우 화려하고 경쾌하게 솔로로 쓰였지만 다른 악장에서는 플루트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음역 대에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에서 바이올린이 사용 된 것과 비슷하게 튜티와 솔로가 혼재하거나 튜티만을 연주하여 선율이 잘 드러나지 않고 중저음 역대를 담당하여 앙상블 악기처럼 사용되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바흐는 플루트를 위해 작곡한 협주곡 중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에서 플루트 파트가 솔로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작곡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후에 플루트가 협주곡에서도 솔로 악기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Ⅲ.결론

본 논문은 J. S. Bach의 <Brandenburg Concerto No.5> 작품 분석을 통해 그의 작곡기법을 알아보고 제 5번이 개량된 단일 키 플루트가 쓰인 최초의 솔로 협주곡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크시기 플루트의 특징과 활용됨을 살펴보았다.

이 곡은 총 3악장으로 구성되며 1악장은 합주부와 독주부의 대조가 분명하고, 첫 튜티 에서 제시된 재료들이 곡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리토르넬로 양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등장하지 않은 재료의 출현, 첨발로의 카덴차, 굉장히 짧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튜티와, 다양한 재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 등을 통해 바흐가 기존의 양식을 활용함과 동시에 어떻게 본인의 독창성을 작품 안에서 실현시켰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2악장은 리피에노 없이 독주악기 군에 의해서만 진행되며 첫 4마디의 모티브가 곡 전체에 걸쳐 활용된다는 점에서 '리토르넬로' 양식의 영향이 조금 남아있었다. 1악장보다는 훨씬 명료하고 단순하며 제3번과 제4번 협주곡을 제외한 다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들의 중간 악장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것과 같이 모방적 성부 진행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악장은 명료한 A-B-A의 전형적인 3부형식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이전 악장들과는 달리 주어진 재료를 복잡하게 활용하는 것 보다는 각 악기들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전

악장들과는 다르게 리토르넬로 양식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모방기법[17]의 양식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곡에 사용된 단일 키 플루트는 17세기 중엽, 오르테르 가계와 다른 프랑스 제조업자가 바로크 플루트에 처음으로 키를 첨가해서 독일인들이 사용하던 것 보다 훨씬 편리하게 만든 것으로 개량이 이루어져 본 곡에서 밝고 풍부한 음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어떤 악기보다도 솔로로 두드러지게 사용되며 본 협주곡에서 중심을 잡으며 음악을 주도하는 주된 선율을 맡았다.

이 연구를 통해 J. S. 바흐는 비발디의 협주곡의 기본 틀에 입각하여 협주곡을 작곡했지만, 이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크 시대 협주곡 관습에서 벗어난 다양한 악기 편성과 리토르넬로 주제선율을 지속적으로 사용, 첨발로에게 독주 기능의 카덴차를 위임한 진보적인 시도는 바흐의 혁신적인 음악적 사고를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제 5번에서 새롭게 고안된 '단일 키 플루트'에 가장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성인 d장조로 완전한 반음계인 2 옥타브를 초월하는 곡을 작곡하고 플루트의 뛰어난 성능을 잘 표현하여 플루트를 위한 곡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17) 모방기법: 카논, 스트레토, 선율 주고받기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그라우트(Donald J. Grout). 1960(2007). 민은기 외 역. Ⅱ『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상)』 이앤비플러스.

그렉 무터(Greg Mooter). 1997(2011). 김선아 역. 『플루트 연주의 예술』 음악세계.

드보스트(Debost). 2008. 문록선 역. 『심플 플루트 from A to Z』 음악세계.

류연형. 2001.『세계음악가의 작품과 인생』 서울 음악춘추사.

보이드(Malcolm Boyd). 1993(2004). 김지순 역. 『바흐 브란덴부르크협주곡』 서울: 동문선.

서종현. 2012.『플루트 주법 연구』 유페이퍼.

포르켈(Johann Nikolaus Forkel). 1802(2005). 강해근 역. 『바흐의 생애와 예술 그리고 작품』 한양대학교 출판부.

해외 단행본

Galway. 1990. *Flute*. Kahn & Averill.

Powell. 2002. *The Flute.* Yale University Press.

Toff. 1996. *The Flute Book: A Complete Guide for Students and Performers.* Oxford University Press.

국내 학술지

김용환. 2010. “협주곡의 카덴차 연구 I (1770-1810),” 『음악논단』 24: 118.

나주리. 2009.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그 회고와 혁신: 제 5번

협주곡(BWV 1050)을 중심으로", 『음악논단』 23: 21-45.
류연형. 2001. "세계음악가의 작품과 인생", 서울 음악춘추사, 197-198

해외 학술지

Dirksen, Pieter. 1992. "The Background to Bach's Fifth Brandenburg Concerto." In *The Harpsichord and its Repertoire*, edited by Pieter Dirksen, 157-185. Utrecht: STIMU,
Francis, John. 1950. "What Bach Wrote for the Flute, and Why." *Music & Letters* 31(1): 46-52.

국내논문

백선미. 2017. "J. S. Bach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의구조 분석 및 발전양상 연구: 비발디 협주곡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신유. 2017.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BWV 1050) 1악장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작곡과 석사학위논문.

악보

Bach, Johann Sebastian. The Six Brandenburg Concertos BWV 1046-1051, Edited by Wilhelm Rust, 117-138.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7.

Abstract

Analysis of J. S. Bach <Brandenburg Concerto No.5> and study of flute utilization

Min gee Kim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German composer Johann Sebastian Bach was influenced by diverse culture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Italy and France. So, even though he was a concertmaster in the German church, he composed not only church music but also secular music which has natural human emotion, pursuing cosmopolitan music.

This study analyzes his fifth concerto of Brandenburg Concerto, which is the only one that has a solo flute part for small string ensemble that used to be composed at the time.

Concert No. 5 of his six Brandenburg concertos is the first solo concerto for Traverso, which is feature improved horizontal flute in Bach's work.

Focusing on this, I will investigate the music of Brandenburg Concerto No. 5 and look at how Bach used the flute as a musical grammar in this piece.

This concerto No. 5 made of three movements, was composed by using the ritornello style under the influence of Vivaldi's music. However, Bach developed this musical style in the composition of the movements or in musical orchestration.

Also, this study reveals the flute part in Brandenburg Concerto No. 5 plays an important role for flute in musical history, showing flute is newly designed as a solo instrument.

Keywords : Bach, Brandenburg concerto, Flute, Baroque
Student Number : 2015-21940